태국건축사협회(ASA) 2011년 컨벤션 참관보고서

Report on ASA 2011 Convention

신춘규 | 본협회 국제 담당이사

"ASA 2011 Convention was held at 'Impact' Convention, Bangkok on 9th thru 13th of February, 2011. President Choi, Young Jeep was invited to be awarded Honorary Membership of ASA and to discuss the further collaboration as the part of MOU which has been established newly in 2010. ASA Convention is an annual event which consists of forums and expositon. Forum has three different categories with Historical Conservation, International and one other forum to focus on current issues(this year, Disaster Relief Forum). ASA Exposition had been very successful in festive moods throughout diverse exhibitions with various exhibitors of building materials, architect firms, related associations, and even schools fo architecture. It was very impressive for me to see many citizens with children and young students and architects."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태국건축사협회(ASA)의 컨벤션에 초청을 받아 협회장을 수행하여 참석을 했다. 이번 총회에는 지난해에 우리 협회와 MOU를 체결한 이래 첫 교류로서 최영집 회장을 초청하여 후속 교류를 협의하고 명예회원증을 주기로 했다.
태국건축사협회의 컨벤션은 크게 매년 두 개의 주요행사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건축전시이고, 다른 하나는 포럼이다. 포럼은 세 개의 포럼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데 해마다 열리는 것이 역사보존 포럼(Historical Conservation Forum)과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해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찾아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재해구난 포럼(Disaster Relief Forum)으로 정했다고 한다. 우리를 비롯한 국제대표단은 방문의 특성상 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거의 없이 MOU 관련회의와 전시만을 참석할 수 있었다. 협약 체결 후 처음 이루어진 이번 방문을 통해 본 태국의 컨벤션에 계속교육의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오히려 미국총회의 참석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참 의외의 결과였다고 느껴진다.
이번 컨벤션에는 아시아 10개국에서 대표단이 참석해서 명실 공히 태국이 국제화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행사가 되었다고 본다. 참가한 대표단은 아카시아 회장을 비롯 한국 외에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홍콩,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마카오 등에서 참석을 했다.

우선 첫날 이루어진 협약에 대한 회의는 센타라 그랜드(Centara Grand

각 국 대표단과 태국협회 대표단

KIRA-ASA 회의

at Central World) 호텔의 회의장에서 열렸으며 태국 측에서는 국제담당 부회장인 사이루트(Sairuth, 일명 누이라고 함), 부회장 샤이랏(Chairat), 국제담당 위원인 용유스(Yongyuth), 월라이폰 교수(Prof. Wallaiporn) 그리고 사무국직원 사릴라(Salila)가 참석을 했다. 두 협회의 협약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안에 대한 의견이 거론되었다. 우선 협회의 구조에 대한 정보 교환, 협회 주요활동(특히 역사보존, 건축전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및 재해구난을 위한 협회의 역할에 대한 협조 등을 주로 협의했으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각 협회 및 건축 관련 제도 비교표를 만들어 각 협회의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협력이 진행되기 전에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기위해 영문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통한 활동 및 정보의 공유, 건축사지(최소 5부) 교환 등에 대해 합의를 했다.
특히 Tri Nation의 한 국가인 싱가포르가 이번 동경 UIA 총회에서 우리와 경쟁국으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한국을 지원해주도록 요청을 하였고 태국협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특히 이번 컨벤션의 전시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컨벤션의 주제는 "버텀 업(Bottom Up)" 으로 정했는데 이는 커뮤니티의 저소득층을 위한 건축에 초점을 두고 작은 커뮤니티에서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했다고 한다. 컨벤션은 방콕시의 비교적 외곽에 위치한 건설한 지 5년 정도 된 임팩트(Impact)컨벤션에서 개최되었는 데, ASA 전시면적만 4,000㎡에 이르고(원래는 한 층 6,000㎡를 다 빌렸었다고 함) 건축학교의 전시 및 건축사사무소, 건축 자재전시, 협회 북스토어(ASA Bookstore) 등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명실공히 종합전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태국협회의 서점(ASA Bookstore)에서는 다양한 ASA 로고가 들어간 제품(책에서부터 셔츠, 스케치 북, 가방 등등)들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협회가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 쪽에는 건축학교 부스들을 만들어 학교건축설계의 종합 전시가 되도록 했다. 특히 둘째 날 ASA Night에는 밴드를 불러 공연을 하고 여기에는 학생 등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참석을 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했다. 건축자재 전시도 미국총회의 전시와는 달리 경직되지 않고 좀 더 여유롭고 센스있는 전시들이 많아 좋았고 판매부스와 비판매부스가 있어 무료로 제공된 비판매부스에서는 자연스럽게 건축학교의 전시 및 비영리건축단체들의 전시, 협회 자체의 전시들이 있어 돋보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는 더 알찬 전시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협회 임원들의 의지를 보며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태국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계속교육을 통해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환영만찬

Tri Nation 회의

전시회 전경(ASA Theatre)

건축사사무소 부스 전경

태국건축사 협회(ASA: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의 통계

1. 공식명칭: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under Royal Patronage)
2. 전체인구: 약 6,600만 명
3. 설립년도: 1,872년
4. 건축사회원수: 약 7,627명
4.1 회원유형별 회원수: 명예(19), 정회원(6,669), 준회원(636), 보조(208), 법인(95)
5. 회장: 타위짓 샨드라사카(Jack Thaweejit Chandrasakha), 임기 2년
6. 등록원: 교육부 산하 태국 건축 등록원ACT(Architect Council of Thailand)
7. 계속교육: 1년에 12유닛요구, ACT에서 계속교육 제공 관리
8. 건축학교: 19개 학교(건축학석사, 5년제만)

ASA 북스토어 전경 1

ASA 북스토어 전경-2

건축학교 전시장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장

행사장 이벤트

유명인사 인터뷰 비디오전시장

건축학교 전시장 전경

전시장 디렉토리

등록 ID

홀 등록대 현장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의자겸 놀이기구

유개공간과 종이전시와 건설자재로 만든 풀리

ASA Night(2월12일) 전경

ASA Night에 참석한 젊은 건축사들과 학생들